

## 성경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말을 10 여년전 우리모임이 분리되는 와중 속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우리 모임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모임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여름 수양회를 갔습니다. 지역교회의 당회장이라 할 수 있는 스텝목자님이 신발을 정리하고, 사모님이 땀을 흘리며 양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모이는 이 모임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거의 사도수준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목자님들의 성경을 떠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신문의 사회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서로의 비방과 싸움이 난무한 종교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모임에도 그대로 있음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사무엘 선교사님은 고통하시며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메세지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임은 그 어떤 모임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으로 돌아가 있고, 성경안에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다음 두가지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극복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역사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자매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스텝목자님이었습니다. 스텝목자님께 부탁하려고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른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그때는 바로 신입생피싱이라는 중요한 역사가 있어서 온 센터가 이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센터분위기에서 감히 스텝목자님을 병원으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해?” 당시 센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것이 너무 가시적인 역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주일예배, 피싱, 수양회, 선교사 파송 등... 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율법이 되어 본질을 떠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루면 되는, '성취지상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가오는 인류의 죄값을 위한 고난의 잔으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미안하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하는 엄청난 사명이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 생각해 보라. 무엇 더 중요한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역사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UBF 적인 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어렸을 때, 자기 삼촌에게서 여러번 성폭행을 당했던 자매님이 저가 목자이자 심리학자란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삼촌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기전에 자기를 보고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무의식세계에 잠재되어있던 그 트라우마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항상하던 습관을 쫓아 성경공부 문제지를 주고 1:1 약속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UBF 적인 방식이 자매님에게 맞지않을 것 같아서 다른 접근법, 곧 상담치료의 방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 번 이상 만나면서 심리치료 기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성경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처음부터 전통적인 UBF 방식으로는 도우려 했다면, 저는 실패했을 것 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없이 익숙해 있는 우리의 습관과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본질에 충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진실한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UBF 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